

특별상  
부문

국무총리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 자율학습 시간

눈을 치켜뜨면서 잠을 몰아내려고 한다  
형광등 불빛에 눈을 찢리면서  
고된 항해 끝에 도착한 입시의 문턱에서  
우리는 낯선 경쟁자가 되어 서로 남모르는 피를 흘리고 있다  
천호동의 밤은 깊어가는데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들이 춤을 추고  
술 취한 취객이 골목에다 욕설처럼 오줌을 싸고 있다  
나는 골목에 들어섰다가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하고  
자꾸만 따라오는 남자를 피해 언덕길을 달리고 있다  
등이 시린 판잣집에는 벌써 불이 꺼지고  
엄마는 대문밖에 내보일 것이 없는 골목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다  
엄마, 세상이 무서워요 라며 품 속으로 뛰어들면  
어둠도 치맛자락 속으로 몸을 숨겼다  
밤 늦은 귀가의 아버지는 곤드레가 되어

문을 두드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자율학습은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맞아들인다

새벽 늦도록 재봉틀을 돌리는 노동자들처럼

나는 책 속에서 한 올 한 올 실밥을 뜯어내고 있는 중이다.

## 산바람

1

계곡을 따라온 바람이 떡갈나무 잎사귀 뒤로 숨고

노루꼬리 만한 햇살도 어느새 바람 깃으로 숨어들었다

노을빛 깊어가는 논밭에서는

고추랑 담배잎이랑 배추잎이 넓은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산그늘이 내려와 바람 등지 속으로 몸을 숨기면

어둑해진 논밭에는 평화의 안식이 찾아들고 있다

슬내음을 맡으면서 천호동 사거리의 야멸찬 밤을 잊으려 한다

계곡을 돌아 나온 젖은 바람이 산사의 추녀 끝에 매달려

서성거리고.

2

가는 빗줄기에 젖어버린 숲이

아득한 안개를 피워올리면

절간에서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눈물처럼 아롱거린다  
지금쯤 아버지는 바람벽을 타고서 어느 처마 밑에서  
서성거릴까  
가파른 삶에 알록달록한 타일을 붙이면서  
밧줄에 매달린 삶이 위태롭기만 하다  
학교 운동장 가에 심어진 등나무 늙은 등걸을 바라보다가  
비비꼬며 제 몸을 비틀어 아픔을 쥐어짜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고된 항해를 생각한다  
늘 깡소주 냄새만 묻히고 들어왔다가 훌쩍 떠나버린 뒤로  
엄마의 가슴 속에는 타다가 만 삭정이가 매운 연기를 뿜어올리  
고 있었다

아버지 저 이제 고3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등나무보다 더 힘들어보이는 아버지의 삶에 내 가벼운 무게조  
차도 얹어놓을 수가 없었다

법당 안을 가볍게 스치며 지나가는 풍경소리에  
처마 끝에 매달린 빗물이 후두둑 떨어져내리고  
초롱꽃이 그제서야 옷깃을 여미며 법당 안으로 들어선다  
석등에 불 밝힌 밤이면  
몰래 나와서 기원하는 밤 공기 속으로  
초생달이 슬그머니 떠오르다가  
풍경 속으로 숨어버리고

나, 다시는 속세로 내려갈 꿈을 꾸지 않으리.

## 전태일 열전을 읽고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외침이 포크레인 삽날에 찍혀  
청계천이 복원되고 있었고  
아득한 옛날에 한 노동자가 석유를 끼얹고 죽었다는 전설조차도  
이젠 믿지 않으려 한다  
책 속에서 실밥이 풀풀 날아오르고  
밤새도록 밤일을 마친 열사의 고단한 잠 속으로  
라면 가락이 툭툭 붙어터진다  
배고픔을 참기 위해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그 오빠는  
가난한 누이들을 보며 속으로 울음을 삼켰다  
재봉틀 속에 자꾸 감겨지는 가난한 삶의 흔적들  
쥐꼬리만한 잔업수당을 받기 위해 눈을 부비며  
청계천의 밤을 밝혔던 그 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도 새벽 시간 동대문 밀레오레에 가면  
그들의 피땀어린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새 상품으로 쏟아져 나온 옷들이  
말간 눈을 뜨고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옷 속에 숨겨진 열사의 외침이  
눈을 뜨는 새벽이다.

의술로 평화를 지키고, 용기로 희망을 남긴

## 『닥터 노먼 베썬』을 읽고

동월천께 드리는 편지

반갑습니다. 그냥 편하게 동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지요? 방금 『닥터 노먼 베썬』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제 마음이 아픈 까닭은 왜 일까요? 한참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노먼 베썬의 유년시절에서부터 스페인에서의 반 파시즘 투쟁, 중국으로 건너가 ‘중일전쟁’이라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항일투쟁에 참여한 종군의 사이자 혁명가로 중국인들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동지’로 칭송을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동 선생님! 베썬 선생께서 작고하신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때에나 지금이나 것처럼 ‘큰 의사’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국경 없는 의사회’가 활동 중이고 일부 뜻있는 의사들이 제3국으로의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햇볕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료혜택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네들의 병명조차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슈바이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달려가 원주민을 위해 의료봉사사업을 펼쳤지만 그의 시각이 제국주의자들의 백인우월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면 그 한계를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액이 모자라 중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직원들이 헌혈을 해서 간신히 상황을 모면한다는 최근의 뉴스보도는 우리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구은 선생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의학도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닥터 베쉰의 전기에는 다른 의사들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그는 질병과 사람, 사회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그 모두를 고치는 의사였습니다. 개업의로서 큰 성공을 했으나 그가 느낀 것은 사회의 커다란 모순이었습니다. 가난은 죄악이 아닙니다만 병이 나서 병원에 가는걸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쯤으로 여기고 돈이 없는 환자들은 치료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동료의사들을 보면서 그는 좌절했습니다.

“부자들의 결핵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결핵이 있다. 부자들은 회복되지만 가난뱅이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경제학과 병리학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쩌면 그때부터 스페인과 중국으로의 그의 의료 활동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이 내전에 휩싸이자 양심 있는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베쑤도 고심 끝에 1936년 11월 마드리드로 갔습니다. 그 곳에서 세계 최초의 이동식 구급차를 도입하고 수혈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부상병을 치료했습니다. 사실 잘 아시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수혈에 대해 무지했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매 순간이 긴급 상황인 전쟁터에는 단 10시간의 차이로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베쑤은 피가 모자라면 자기 피를 뽑아서 부상자에게 주어가며 파시즘에 맞서 싸웠습니다.

사뭇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인간 생명을 향한 존중과 따뜻한 연민,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춘 한 휴머니스트의 삶을 보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사람들은 ‘의사’를 돈 밝히는 속물이라고 일축해 버리지만, 부분이 전체를 대신할 수 없듯 전체가 부분을 대신할 수도 없는 거겠죠. 유치환의 시중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베쑤이 당시 느꼈을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沙丘)에 회환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이미 유명해진 이 말이 오늘따라 새삼스레 생각이 납니다.

1938년에는 모택동의 중국공산당이 일본군국주의와 투쟁하는 전장에서 의료진을 지휘하며 중국 대륙을 누볐습니다. 동 선생님과 베쑤의 만남도 그 광활한 중국 땅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베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필요로 하는 곳이 중국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란 사자의 심장과 숙녀의 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 글귀를 읽을 때마다 베쑨의 고약한 입버릇이 생각이나 자꾸 웃음이 납니다. 후에 ‘봉의 일화’도 따지고 보면 원인은 베쑨의 독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신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던진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욕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안일하게 생각한 우리 모두를 향한 질책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에라스무스는 ‘전쟁은 짐승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시린 제 가슴에 부딪히는 파도가 되어 은빛 빛나는 물방울들을 뿌리고 사라집니다. 특히 스페인의 ‘말라가 도로’의 참상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압제에 저항하기 위해, 혹은 가련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남으로 피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전쟁준비를 해 놓아야만 평화를 준비할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이 살갓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우습게도 파괴를 즐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만, 또한 인간에게는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도 있으니까요.

선생님, 저는 베쑨의 삶을 통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장래에 의학공부를 할 계획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를 고칠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병들어 있다면 그 세상을 정화시키고, 사람이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을 고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의술이 아닌 제가 가진 능력으로 말이죠. 꼭 그래야만 한다는 사명감마저 느낍니다. 장래에 UN에서 일하며 국제 난민

을 돕는 것이 소망인 저에게는 노먼 베쑤과의 인연이 우연이 아닌 필연일지도 모릅니다.

베쑤는 당신을 '나의 분신' 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그 분에 대해 잘 아시겠지요? 앞에서 베쑤의 사회적 업적을 충분히 언급했으니 이제 그의 인간적 면모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히 놀랐던 부분을 여기 옮겨봅니다. "수술에 임하는 의사라는 사람이 자연과 세계 속에서 아무런 힌트나 해답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그는 인명을 학살하는 일을 즉시 중지하고 도랑이나 청소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성품이 구두장이의 절단기를 모방한 '베쑤 늑골절단기'를 탄생시켰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뛰어난 관찰력과 사물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알을 품었다는 에디슨의 유년시절의 일화도 다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누구보다 중국인민을 사랑하셨습니다. 노먼 베쑤이 유서에 남긴 말을 적어봅니다.

"지난 2년은 제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때때로 외로움도 느꼈지만, 저는 이곳의 사랑하는 동지들 틈에서 최고의 생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껏 쏟아놓은 말들을 읽으신 후 뭐라고 느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 미흡한 점이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면,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민심이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민심이 통일되어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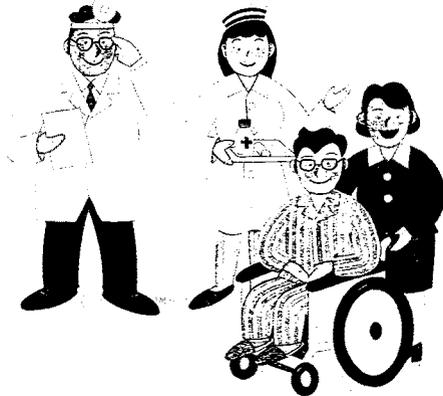
않으면 아무리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전략에 빠짐이 없어도 그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것이니까요 또한 중국인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 '백구은' (白求恩 · White Seek Grace)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인류의 미래는 그리 밝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 분과 같은 휴머니스트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 1 퍼센트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 제가 커서 인류평화에 기여하게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희망은 언제나 우리의 도처에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며.

한국에서  
서지에 드림



## 가난한 반장

빠알간 노을을 등지고 땅을 바라보았다. 반쯤 뜯어진 운동화에 땀물이 묻어 이젠 번질번질해져 버린 교복치마 긴 한숨만이 나올 뿐이다. 오늘 하루의 기분은 '우박이 아주 심하게 내림'이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얼음덩이를 맞은 기분이었다. 학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껄이는 말이라고만 생각했던 '편애'라는 말이 맑은 하늘같은 내 가슴을 사정없이 후비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지금도 머릿속이 따갑다. 기분이 나쁘다.

오늘은 학부모 총회가 있는 날이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학부모 총회를 일년에 두 번 열었다. 1학기가 시작되는 봄에 한번, 그리고 2학기가 시작되는 가을에 한번 이렇게 말이다. 물론 나에게 해당사항이 별로 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말이다.

내게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 다니 남들이 들으면 좀 의아스러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뭐 그렇다고 엄마가 안계시다 거나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많이 피곤하시다. 아주 많이 말이다.

우리 엄마는 길에서 포장마차를 하신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건 물론 아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 아빠가 저기 저 푸르른 수영장 같은 곳으로 먼저 풍덩 뛰어버린 그때부터 엄마는 그 일을 해왔으니까…….

난 이런 엄마가 부끄럽거나 그렇진 않았다. 오히려 미안했다. ‘나만 없었더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고생 하며 돈을 벌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간혹 들었다. 내 코를 간간히 간질이고 도망가는 저 은은한 가을바람처럼 말이다. 그래서 엄마께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 늘 바윗덩이처럼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조금이나마 웃게 해주고 싶어서 난 정말이지 매사에 열심이였다. 그리고 이런 나를 참 잘 봐준 친구들 덕택에 매년 반장을 맡아오기도 했다.

그런데 반장을 맡은 후로 나의 학교생활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니 단순히 생활의 변화라기보다는 담임선생님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오늘 아침에만 해도 갖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내가 많은 걸 알아버린 것 같아, 아니 많은 걸 알아 나야 하는 것 같아 한편으론 겁나지만 한편으론 속이 짝 찬 느낌이기도 하다. 비록 쓸쓸하긴 하지만 말이다.

오늘 아침 담임선생님의 호출을 받은 나는 교무실로 달려갔다.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여느 때와 같이 나에게 이것저것을 꾸짖으시기도 하고 무언가를 시키시기도 했다. 특히나 오늘은 학부모 총회가 있는 날이니 교실 청소예 각별히 신경 쓰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그 끝에 우리 엄마 얘기를 잠깐 꺼내셨다. 오늘도 학교에 못 나오시냐며 불평을 하셨다. 그리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반장일이 갈수록 힘들어지니 내년부턴 나가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다. 약간의 땀이 등줄기에 흘렀다. 손을 불끈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저 돈 없는 죄니 하고 돌아섰다. 난 그렇게 민망한 상황을 얼버무리고 교무실을 빠져나왔다. 기분 나쁘긴 했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일을 하니깐……. 내가 그러니깐…….

방과 후에 부반장을 맡은 친구와 함께 책상정리를 했다. 한참을 하고 있는데 그 에 엄마께서 잠깐 교실에 먼저 들르셨다. 그 어머니께선 친구에게 뭐라고 컷속말을 하신 뒤 자리를 뜨셨다. 내게는 간단한 눈인사만 건넸고 나도 그랬다. 별 생각 없이 한참을 치우다가 하나 둘 어머니들께서 오시자 나는 선생님을 모시러 교무실로 향했다. 슬쩍 문을 열었는데 아까 부반장 엄마와 무슨 담소를 나누고 계신 것 같았다. 선생님의 눈빛은 아까 내게 보내주셨던 실얼음과는 뭔가 다르다는걸 느꼈다. 난 나도 모르게 슬며시 선생님과 그 어머니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리고 난 내 귀를 의심하는 말도 듣게 되었다. 바로 우리 엄마 얘기였다.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좋아하는 가을 홍시 같은 진솔한 우리 엄마.

선생님께선 우리 엄마가 학교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며 연신 하소연을 하셨다. 그리곤 엄마가 길에서 포장마차를 한다는 사실, 나에겐 갖은 양념과 기름 냄새가 난다는 사실까지 마구 토해냈다. 압삽하게 도토리를 물고 알땀겨 나무를 타는 청솔모처럼 선생님은 한껏 얼굴이 부풀어 있었다. 그 얼굴 당장이라도 내 반장직을 뺏고 싶어 하는 표정과 손짓 하나에 나는 눈을 깜짝였다.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화가 났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뜨겁고 짜디

짙은 눈물이 내 볼을 타고 손을 타고 내 낡은 운동화를 달래주었다.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연신 고동치는 내 마음은 괜찮은 척 하려 해도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반장 일을 못해서 꾸짖음을 받는다면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불쌍한 우리엄마, 포장마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돈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것이 아닌 우리엄마를 인간적으로 무시하고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분노의 바다가 눈에서 들끓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큼 기분이 역했다. 포장마차가 어때서,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뭐 어때서! 몸에서 기름냄새가 나는 게 뭐 어때서! '돈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따라서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 라는 우리 선생님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저기 처량히 흘러가는 구름처럼 안타까웠다. 불쌍했다.

머릿속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짧지만 가슴 찢어지는 나만의 영화를 돌려보는 동안 하늘은 종종 별을 박아 두었다. 반짝대는 것이 내 눈물을 내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발걸음을 '집으로'에서 '엄마에게'로 돌렸다. 지금쯤이면 음식 만드느라 정신이 없을텐데. 네모반듯한 뚜벅이 가방이 어깨를 자꾸 눌러 힘들었지만 그래도 엄마 얼굴을 보고 엄마를 마음으로써 달래줄 수 있다면 난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달린다. 그 끝이 어딘지는 마저 달려봐야 알겠지만, 아마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내가 당당히 여러 선생님들 앞에 설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 그날이 바로 내가 달리는 마라톤의 끝이 아닐까?

